metro
메트로 2012년 11월 1일 목요일

Entertainment p/16

싸이 이대로 가면 곧 1위

World p/06

美 대선 연기 가능성 제기

KS 5차전 삼성 이겼다

SPORTS p/20

Entertainment p/16
허경환 신수지 열애설 부인

메트로 2012년 11월 1일 목요일 www.metroseoul.co.kr

"지금 멋내는것은 사치" 지갑마다 자물쇠 꽁꽁

경기침체 장기화에 옷·신발·가방도 안사고 '플랜B 짠물생활' 확혁

"새 옷은 무슨... 경기가 이런데, 멋 부릴 여유가 어디 있어요?"

요즘 옷과 가방, 신발이 안 팔린다. 포스코와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발 구조조정 소식에다 향후 경기 전망까지 어둡다 보니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버티고 있다.

3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와 통계청에 따르면 의류업체 LG패션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89억원으로 지난해(91억원)보다 2.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LG패션은 올해 들어 3분기 연속 실적이 고꾸라지는 중이다.

노스페이스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영원무역홀딩스는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10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20억원)보다 3.2% 늘어나는 데 그쳤다. 2분기에 적자(22억원)로 돌아선 진도 또한 3분기 실적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

의류업체들의 마이너스 성적표는 최근 달라진 소비패턴에 직격탄을 맞은 결과다. 유행을 따라 일정 기간마다 새 옷이나 잡화를 사던 돈을 줄이고, 있던 것을 고쳐 쓰며 짠맛 나는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이다.

씀씀이가 큰 디파짓(deposit)족은 흔적마저 발길을 돌리고 있다. 디파짓족들은 뭉칫돈을 매장에 먼저 맡긴 뒤 수시로 옷을 사가는 이들로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VIP로 대접받는다.

올 초까지만 해도 백화점 여성 브랜드 A매장에 500만원씩 맡겨두고 옷을 사던 직장인 이희선(34)씨는 이제 더 이상 백화점을 찾지 않는다. 이씨는 "업무상 좋은 옷에 신경 썼는데 요즘은 옷장을 뒤져 작년에 산 걸 다시 입고 있다"며 "요즘은 돈 있는 사람이 비싼 '신상'을 사는 게 아니라 속없는 사람이 사는 것이라고들 생각한다"고 말했다.

니트의 몸통을 잘라 스커트로 만들고, 오래돼 촌스러워진 재킷의 깃을 줄여 트렌디하게 만드는 리폼의 매력도 여성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리폼에 대한 관심이 늘자 여성들이 주 시청자인 케이블채널 스토리온의 '마승연과 100인의 여자'에선 방청객들의 옷을 즉석에서 리폼하는 노하우를 선보여 호응을 얻기도 했다. 아이파크백화점에선 직접 리폼을 하려는 이들이 많아지자 재봉틀을 판매하는 매장을 열고 재봉 강습까지 진행하고 있다.

옷은 물론이고 가방, 신발 등 몇 년에 한 차례씩 교체하는 준내구재의 소비 또한 크게 줄어든 상태다. 지난 8월 준내구재 소비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4.2% 떨어지며 44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최근 가을세일을 끝낸 백화점들의 성적표도 저조하다. 현대백화점에선 남성·여성의류 매출이 2~5%까지 추락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아웃도어 상품 매출이 늘었지만 이월상품을 할인해 파는 행사상품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알뜰한 차선책을 추구하는 소비스타일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트렌드를 연구하는 김난도 교수(서울대 소비자아동학부)는 자신의 책 '트렌드코리아 2012'에서 불안한 경제 속에서 두드러지게 되는 소비스타일을 '플랜B 경제'라고 정의했다.

그는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이 상시화되는 시대에는 가격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 비싸지만 품질이 아주 조금 나은 플랜A 제품보다 싸지만 매력 있는 플랜B 제품을 선택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쪽으로 진화한다"고 설명했다.

/전효순기자 hsjeon@metroseoul.co.kr

유치원 입학 밤샘 줄서기 사라진다

선착순·학부모추천 선발 금지 형제·자매 등 우선입학은 허용

전국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원아 선착순 모집 행위가 금지되고,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입학생 추천 관행도 차단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치원 원아 모집 관련 권고사항'을 9~10월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모든 국공사립 유치원에 안내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 당국의 권고사항은 유치원 대기자 명단 작성과 추첨 등을 통해 유치원 교직원 자녀를 포함한 모든 지원자에게 공정한 선발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원아를 모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유치원들의 선착순 원아 모집 행위 때문에 발생했던 '줄서기'를 하던 진풍경은 사라지게 됐다. 선착순 모집은 경쟁 과열 등으로 학부모가 먼저 취원등록을 하기 위해 밤새 줄을 서 기다리는 병폐를 낳았다. 일부 맞벌이 가정 학부모들은 줄서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곤 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생 학부모의 추천 입학 방식도 금지된다. 일부 유치원이 기존 학부모의 추천 입학 제도를 악용해 '귀족유치원화'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만 다자녀 부모가 아이를 각각 다른 유치원에 보낼 경우 교육효율 저해와 양육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만큼 기존 취원 원아의 동생을 우선 입학시켜주던 관행은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권고사항은 9월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시행령 15조에는 유아 선발 시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선착순 모집이나 학부모 추천 등을 지속하는 유치원은 지원금 삭감과 정원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의 영유아 보육 정책에 따라 유치원 입학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일부 유치원의 불법 행위를 엄격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민호기자

도심에 매달린 사과 31일 서울 동대문구청 광장에서 열린 참송사과따기 행사에서 한 시민이 사과를 따며 즐거워하고 있다 /동대문구청 제공

동네사장님 빚만 1억

자영업자들 가계부채 430조 부채규모 월급쟁이의 두 배

자영업자의 가계부채가 임금 근로자의 2배인 1인당 9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체율(3월 말 기준)도 1.1%로 임금 근로자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1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자영업자의 부채규모는 4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6.9%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가계부채 증가율(8.9%)을 웃돈다.

◆올 3월 말 연체율도 1.1%

또 자영업자의 부채는 가구당 9500만원으로 임금 근로자(4600만원)보다 두 배가량 많고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219.1%로 임금 근로자(125.8%)를 크게 웃돈다.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40%를 초과하는 과다채무가구 비중 역시 14.8%로 임금 근로자(8.5%)보다 높은 편이다.

최근에는 연체율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해 3월 말 1.1%로 임금 근로자(0.6%)에 비해 높았고, 상승 속도도 가팔랐다.

한은은 "자영업자 부채는 경기 상황 및 부동산 가격 변동에 취약해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채무 불이행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내수경기 부진이 지속될 경우 부채의존도가 높은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두성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서울 도심 화재 점포 17곳 전소 ... 소방대원들 사투 31일 오전 6시5분께 서울 종로구 관수동 서울극장 옆 한 상가 식당에서 조리 중 다량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날 화재로 점포 17곳이 불에 탔다. 진화 작업 도중 한 소방관이 눈을 붙고 씻어 내고 있다 /뉴시스

독도 외교전 또 졌다

구글 이어 애플도 다케시마 등 3개 명칭 표기

애플이 독도를 다케시마와 리앙쿠르암 명칭과 병기하면서 독도 단독표기가 또 물 건너갔다.

한국에서 접속하면 독도, 일본에서 접속할 경우 다케시마가 뜰 예정이라 "애플의 양다리 꼼수"란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31일 우리 정부는 "애플사가 아이폰 운영체제 iOS6 새 버전의 지명 표기에 한국어버전은 독도, 일본에는 다케시마, 영어를 포함한 기타 제3언어는 리앙쿠르암, 독도, 다케시마 순으로 병기하겠다는 방침을 알려왔다"며 "1~2일 내에 서비스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출시된 애플의 iOS 6 골드마스터(GM) 버전에서는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권 지도에서 독도가 단독 표기됐다.

그러다 버전이 업데이트되면서 영어 등 제3국어 사용지역에서는 독도와 다케시마가 병기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이다.

애플은 "일본이 한국보다 시장 규모가 크고 비즈니스 이해관계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당국자는 "지난번 독도 단독표기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일본에서 로비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근 일본이 표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방어적에서 공격적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IT강국 코리아의 씁쓸한 현실" "국가 영토를 왜 비즈니스 측면에서 접근하나" "우리나라 외교력이 문제"라며 성토했다. /정윤희기자 unique@

8일부터 스마트폰 소액결제

이용액 하루 30만원 제한

8일부터 휴대전화를 체크카드처럼 쓸 수 있다. 단 하루 결제금액은 30만원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으려면 창구 방문 등 대면 확인을 거쳐야 해 스마트폰에서 소액 직불결제를 할 수 있는 '앱' 발급이다 기업이 어려운 점을 개선한 것이다.

금융위는 공인인증서나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전자적 본인확인수단으로 직불결제수단 발급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또 해킹과 같은 금융사고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일 1회 결제 가능금액을 30만원으로 제한했다.

출금동의서 작성 시 태블릿PC 화면 위에 하는 자필 전자서명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직접 서류에 서명하거나 온라인상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승인만 가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쉽게 전자서명을 할 수 있어 종이를 절약함과 동시에 전자금융거래의 편의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상준기자

서울에 첫 서리 … 내일 중부 대부분 영하권

10월 마지막 날 서울에 첫서리가 내린 가운데 주말까지 쌀쌀한 추위가 닥칠 전망이다. 31일 기상청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2.3도까지 내려가고 설악산 산간지역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이 초겨울 날씨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상공에 영하 20도의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고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져 이날 날씨는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웠다"면서 "서울에는 첫서리가 내릴 정도"라고 밝혔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상층에 머무르는 찬 공기로 인해 기온이 계속 떨어져 이번주 내내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다"며 "이번 추위는 2일 오후부터 풀리고 4일 전국에는 비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충희기자

14분만에 당락 결정되는 취직 면접시험

'인성' 질문 답변 잘해야 합격

면접 진행 중인 인사지원자들은 평균 14분 만에 당락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취업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397개 기업 중 68.8%가 '면접 중간에 당락을 결정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또 전체 지원자 중 평균 60%는 면접 진행에서 당락이 결정되며 1인당 평균 면접 시간은 22분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전체적인 진행 절차와 관계 없이 면접 진행 중 단 하나의 질문으로 당락을 결정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64.5%가 '그렇다'고 답했다.

당락을 좌우하는 핵심 질문의 내용은 '도덕성, 예의 등 인성에 대한 질문'(50.9%,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보유한 직무 역량에 대한 질문'(47.3%), '근무조건 수용에 대한 질문'(38.5%), '성향 및 가치관에 대한 질문'(36.3%), '예사심 및 업사 열정에 대한 질문'(31.9%), '조직문화 적응력에 대한 질문'(30.8%) 등의 순이었다.

/박은호기자 eleven@

남한강 도하 완료 31일 충주시 앙성면 남한강에서 열린 '2012 호국훈련' 제병협동 대규모 남한강 도하작전'에서 수기사 기계화부대 장병들이 부교 도하 훈련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연예계 노예계약 아웃!

수입 생기면 45일내 입금 등 모범기준 제정

연예계 노예계약을 막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기준이 마련됐다.

공정위는 31일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제작사 간의 모범거래 기준을 제정했다.

앞으로 매니지먼트사는 기본 정보와 인권보호 방침, 재무 상태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연예인이 매니지먼트사를 선택·거래할 때 권리 확보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 소속 연예인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수입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정산해야 하고, 연예인의 요구가 있으면 매니지먼트사는 7일 이내 회계장부 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또 자사 제작물에 출연할 경우 반드시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한다.

연예계 노예계약을 막기 위해 주요 매니지먼트사의 위법한 계약조항 및 행위 사실도 금지하도록 규정됐다.

/김현준기자 rr.kim@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한국>

글·그림 박상철

'고졸·대졸 금리' 없앤다

은행 대출기준서 학력·나이·성별 등 차별금지

학력, 장애, 성별 등을 이유로 은행 수수료, 금리, 대출한도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게 됐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이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행위의 사전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차별행위 방지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금융소비자의 권익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은행의 신용평가모형에 대한 비판이 있어 개선방안을 강구했다"며 "신용평가 모형뿐 아니라 여신과 수신업무 등 은행업무 전반에 걸쳐 은행이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요소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권은 신용평가나 수수료, 금리, 대출한도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장애·나이·출신국가·혼인 여부·학력 등을 이유로 특정 은행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다만 법규나 행정지도에 따른 경우나 금융상품의 특성상 특정 은행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예외키로 했다.

아울러 은행권은 불합리한 차별행위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차별행위의 시정, 개선 및 피해구제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향후 각 은행은 연말까지 신용평가모형과 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점검해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개선할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zen@metroseoul.co.kr

LTV 낮아도 금리 우대 은행들 담보대출 개선

일부 시중은행에서 주택 담보가 치인정(LTV) 비율이 낮은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집값 하락에 따른 가계대출 건전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개선에 눈길을 돌린 것으로 '깡통 주택'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장기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유 장기대출 주택(II)' 상품을 리모델링해 지난달 선보였다. 최대 연 0.9%포인트였던 우대금리를 1.23%포인트로 높이고 우대금리 항목도 늘렸다. 고객의 이자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고객 가운데 LTV 비율이 40% 이하인 고객은 연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씨티은행도 '씨티주택담보대출' 고객 가운데 LTV가 40%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주고 있다.

/김지성기자

남심 홀린 야구여신 포스 31일 서울 잠실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2012 서울걸즈컬렉션'에서 '야구 여신' 최희 아나운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술이 웬수? 깨고 나면 늦어요

살인·성폭행·폭력 등 강력범죄 30% 이상 술 취한 상태서 발생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파랑새포럼(120개 음주폐해예방 단체모임=사무국 대한보건협회 www.naam.or.kr)은 이번 달을 '음주폐해 예방의 달'로 정하고 '술 마시면 변하는 당신, 깨어보면 늦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주취·성 가정폭력 등 음주폐해와 폭력 발생 위험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기간에는 전국 보건소, 알코올상담센터, 대학절주동아리, 한국건강증진재단, 국방부, 경찰청, 전국 병·의원 등 총 471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한다. 1일 정오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음주 폭력 없는 사회'일 기원하는 연합캠페인과 함께 공공장소 음주 및 매체 주류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건강증진법 개정안 지지 서명 운동이 펼쳐질 예정이다.

광화문광장 캠페인에서는 음주습관진단, 알코올 중독전문가 1 대 1상담서비스, 건강검진 등의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퍼포먼스 형식의 릴레이를 난... 절주스타일 ... 가상음주고글 퀴즈마당 등의 체험과 아카펠라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진다. 그 외 음주와 폭력을 주제로 트위터(twitter.com/#!/BlueBird_Forum)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BlueBird.Forum)을 통해 각종 이벤트가 한달 동안 진행되며 전국적인 릴레이 캠페인 및 파랑새포럼 참가단체 등이 연합한 각종 행사 및 홍보활동이 전개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술에 취할수록 범죄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위험이 커지며 특히 살인 36.0%, 강간·추행 34.4%, 폭력 36.3% 등 강력범죄의 경우 10명 중 3명은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음주폐해예방의 달' 캠페인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는 '음주폭력'의 발생위험을 줄이고 음주와 폭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산시키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배동호기자

보건복지부와 파랑새포럼은 전국 릴레이 음주폐해 예방 캠페인을 펼친다. 사진은 캠페인 포스터 공모전 대상 수상작

오늘 낮 광화문광장서 음주폐해 예방 캠페인 한달간 SNS 이벤트도

단일화 '25일 전쟁' 시작 · 文-安 시간차 노림수는?

文은 국민경선! 安은 여론조사!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간의 '25일 단일화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길으로 드러난 단일화 논의 개시 시점은 사실상 단일화 방식과 연관돼 있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31일 충북도당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후보 단일화는 후보등록 전인 (다음 달) 24일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단일화 논의 시점을 못박았다.

안 후보 측이 단일화 논의 시점을 정책공약집 발표(11월 10일) 이후로 미룬 것에 대해 이학영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정책구상과) 단일화 논의를) 분리할 필요는 없다"며 정책구상과 단일화 논의를 투트랙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안 후보 측 정연순 대변인은 "캠프에서는 이 약속(11월 10일 정책공약집 발표)을 지키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공약을 다듬고 후보도 조율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이 같은 온도차는 국민참여경선과 여론조사라는 단일화 방식과 직결된다. 문 후보 측에 유리한 국민경선은 선거인단 모집 등 준비에 열흘 이상 걸린다. 문 후보 측이 단일화 논의를 서두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조직세가 약한 안 후보 측에는 여론조사 방식이 유리하다. 여론조사 방식은 준비기간이 비교적 짧다. 논의 시간이 촉박할수록 단일화 방식으로 선택될 확률이 높다는 게 안 후보 측 판단이다.

한편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안 후보는 번번이 문후보에 판판이 지는 꼼수정치의 전형을 보여왔고, "문 후보는 (안 후보에게) 협상에 나설 것을 읍소하는 구걸정치에 나섰다"고 야권의 단일화 논의를 싸잡아 비난했다.

/김두희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근로복지공단 2관왕 '경사'

산재 근로자 맞춤서비스 ISSA 대상·특별상 수상

근로복지공단이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의 2012 우수사례 대상과 특별상을 동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국제사회보장협회가 주관하는 2012년 우수사례'에서 대상과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153개국 335개 기관이 회원으로 속한 국제사회보장협회는 사회보장 분야의 국제노동기구(ILO)로 1927년 설립된 이래 사회보장제도 관련 정보교환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상 수상 사례는 '산재근로자를 위한 맞춤형통합서비스'다.

공단의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통해 산재 장해인 직업복귀율이 2010년 64.1%에서 지난해 70.4%로 6.3%포인트 증가한 사례와 한국 산재보험 48년의 흐름을 재활 중심으로 이끈 공헌이 주요 선정 이유였다.

또한 공단은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공제서비스'와 '현장 중심 업무 프로세스(IT) 최적화를 통한 지식행정 구축' 사례로 특별상도 수상하는 겹경사를 맞았다.

신영철 이사장은 "각국의 사례를 공유하는 기회가 전 세계 사회보장제도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좋은 사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윤희기자 unique@

'건설의 미래' 레고경진대회

전국 초등학생들이 레고 브릭으로 창의력을 겨루는 이색 대회가 열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최삼규)는 2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미래를 표현하는 제1회 미래건설산업 창의력 경진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참가 신청은 대회 홈페이지(www.creativecontest.co.kr)를 통해 1~11일 접수하면 된다. 고 저학년부로 나뉘어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저학년부의 경우 부모와 함께 2인 1팀으로 출전할 수 있으며 선착순 50팀까지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문의 070-8668-6442·info@creativecontest.co.kr /배동호기자

文, 중도사퇴시 보조금 미지급 법안 전격 수용

"투표시간 연장 함께 처리하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후보 중도 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을 수용하며 '투표시간 연장법안'과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문 후보 측 진선미 대변인은 31일 "문 후보의 전격 결단에 의해 급히 브리핑한다"며 "새누리당이 이정현 공보단장을 통해 공식 제기한 보조금 미지급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수용 의사를 밝힌다"고 말했다.

진 대변인은 "투표시간 연장법안을 대선 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 판단했다"고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안철수 후보 측 정연순 대변인은 "문 후보 결단을 존중한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약속한대로 즉시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박선규 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정현 공보단장의 제안은 개인 입장"이라면서도 "문 후보의 입장을 환영한다. 다만 法의 대상은 투표시간 연장뿐만이 아니라 접근성 강화, 유권자 인식 제고 등 종합적인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후보측의 이번 결단이 안 후보 측에는 단일화 시점 마지노선을 후보 등록 전으로 못 박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김숙희기자

"朴, 속상한 손연재 꼭 불러야 했나"

민주통합당이 토론회장에 '체조 요정' 손연재 선수를 부른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맹비난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이탈리아 대회에도 못 나가고 러시아 전지훈련도 나가지 못해 속상해 있고 훈련에 바쁜 손 선수를 불러다 사진 연출용으로 쓰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새누리당과 박 후보를 비난했다. 이어 "고등학생 신분의 손 선수를 정치행사에 억지로 불러 박 후보 옆에 세워 이미지 사진용으로 써먹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 선수는 3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새누리당 한 의원이 주최한 '체육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박 후보, 장미란·신아람 선수 등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숙희기자

고인 그리우면 스캔하세요

벨기에 업체, 비석에 QR코드 새겨주는 서비스 시작

벨기에에서 묘비석에 QR코드를 새겨주는 서비스가 시작돼 화제가 되고 있다.

벨기에 석공업체 부트 케스테커가 묘지를 방문한 추모객이 비석에 새겨진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고인의 개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벨기에 공영 VRT방송이 31일 전했다.

고인의 개인 웹사이트에는 생전에 작성한 글이나 사진, 비디오, 음악 등이 게시된다. 추모객은 이런 게시물 감상은 물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이트에 접속, 고인의 웹사이트에 추모하는 글을 직접 남길 수 있다.

이 방송은 고객에게 SNS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추모의 장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사업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김유리기자

today metro global 지금 클릭! metroseoul.co.kr

- 휴가 냈다 잘리면 누가 책임지나
- 싸이 토론토 최대 클럽서 콘서트
- 청나라 건륭제 보검 84억원 낙찰

"화성 흙 하와이와 같은 현무암 성분"

화성 흙은 하와이와 같은 현무암 성분이란 분석이 나왔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화성탐사 로봇 큐리오시티가 화성 흙에 대한 첫 토양샘플 분석 결과를 보내왔다고 30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화성 흙에는 수정 결정체인 장석류, 휘석, 감람석과 기타 비결정성 광물들이 포함돼 있다. NASA는 "이는 화성의 토양이 하와이의 현무암 토양과 매우 비슷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로써 화성 전체에 퍼져있는 먼지의 고운 흙의 광물학적 구성에 대해 초창기 추측과 현재 계산 사이의 괴리를 메울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게 됐다. /황윤희기자 unique@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중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4
회장 겸 발행인 남궁호
사장 겸 편집인 김충혁
총괄편집국장 김환웅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658-2100
독자센터 02)721-5082

연금복권520 제70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20년	7조	252481
		5조	341640
2등	1억원	1등각조 전후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561653
4등	100만원	각조	41476
5등	2만원	각조	817
6등	2000원	각조	68, 32
7등	1000원	각조	2, 5

허리케인 '샌디'가 휩쓸고 간 뉴욕시 퀸즈에 대형 화재가 발생해 50여 가구가 소실됐다. /AP 뉴시스

'프랑켄스톰'이 할퀸 미국 최대 55조 피해… 뉴욕 등 재난지역 선포

대선 연기될 가능성도

초특급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 대륙을 초토화시킨 가운데 오는 6일로 예정된 대선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30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크레이그 퓨게이트 연방재난관리청장은 "샌디의 영향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연방법은 대통령 선거를 11월 첫번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에 치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투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비상사태 때는 다른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인정한다.

대선 날짜가 변경된 경우는 아직 없다. 2004년 대선 때도 테러 공격 가능성이 제기돼 투표일 연기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당시 하원은 "누구도 대선 연기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29일 성명을 통해 "선거는 다음 주에 어쨌든 실시될 것"이라며 연기 가능성을 일축했다.

괴물 폭풍 샌디의 피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미 재난당국은 지금까지 최소 39명이 숨지고 820만 가구가 정전으로 암흑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샌디에 따른 피해 규모는 최대 500억 달러(약 55조원)까지 추산됐다. 재난 위험 평가업체인 에퀴캣은 100억~200억 달러(약 11조~2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고, 경제분석 업체인 IHS 글로벌 인사이트는 복구 사업 비용 등을 고려하면 피해 규모가 최대 50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뉴욕과 뉴저지, 롱아일랜드를 중대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13개 주의 주지사들과 피해 대책 및 연방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좋은 술을 더욱 좋게, 술 품질인증제!

대한민국 대표 술 에는 「품질인증마크」가 있습니다.

45일간 매일매일 선물이 **팡팡~**

(추첨을 통해 **상품권** 증정)

■ 기간 : 2012. 9. 25 ~ 11. 8 까지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www.naqs.go.kr
TEL : 031-460-8896

술 품질인증제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이 제품의 성분분석 등을 통해 품질을 인증하고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

품질인증 대상 주종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해외 증시
Nikkei (일본)
8926.29 (+86.31)
Hang Seng (홍콩)
21641.82 (+213.24)
Shanghai (중국)
2068.88 (+6.53)
Dowjones (미국)
휴장

EXCHANGE RATE

통화	매매기준율
달러	1090.00
엔(100)	1366.26
유로	1416.67
위안	174.76

은퇴자 '자식 돈, 그림의 떡'

둘 중 한명만 경제적 지원 월소득 환산 33만원 수준

부모들이 농담처럼 "자식은 보험용 아닌 애완용"이라고 말했던 게 현실이 됐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퇴자 두 명 중 한 명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31일 발표한 '자녀의 경제적 지원과 은퇴자 삶의 만족' 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은퇴자 1392명 가운데 45.4%(632명)는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번 조사 결과 경제적 지원을 받는 은퇴자의 평균 연간 총소득은 935만원(월 78만원)이었고,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은퇴자는 월 54만원씩 총 648만원의 소득을 갖고 있었다.

이 중 지원을 받는 은퇴자는 총소득 935만원의 42%(393만원)를 자녀로부터 받았다.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월 33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또 지원 자녀는 아들이 총액의 3분의 2를 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사람은 여성, 배우자가 없는 사람, 독립적인 경제력이 없는 사람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박성훈기자 pstl@metroseoul.co.kr

죽을 힘 다해 일주일 더 열공! 본죽이 31일 서울 종로구 덕성여고에서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죽을 힘으로 수능 응원 캠페인을 실시, 학생들에게 한 번 먹으면 시험에 떨어지지 않는 죽 이란 뜻을 담은 불낙죽을 나눠줬다. /뉴시스

세계 음악산업 '뮤콘' 모여!

국내 첫 국제 음악교류 행사 오늘 서울서 개막

K-팝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 음악 산업 관계자들이 소통하는 국내 최초 국제 음악 교류의 장 '뮤콘 서울 2012(MU CON SEOUL 2012 이하 뮤콘)'가 11월 1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및 홍대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뮤콘에서는 '세계와 소통하는 아시아 음악'을 주제로, 음악계의 거장들이 전하는 최신 시장 동향을 공유하는 컨퍼런스, 해외 진출을 꿈꾸는 국내외 뮤지션들의 쇼케이스,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도록 지원하는 비스 매칭 등이 진행된다.

먼저 한국콘텐츠진흥원 공동제작센터에서 열리는 개막 행사에는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뮤콘 공동조직위원장인 홍상표(사진 왼쪽)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가수 패티김(오른쪽) 등 국내 관계자와 해외 음악 산업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박성훈기자

현대종합상조 창사 10주년 '장례문화 혁신' 공모전

국내 1위 상조회사 현대종합상조가 창사 1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 장례문화 혁신'을 위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참가분야는 '대한민국 장례문화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 '상조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아이디어', '전통문화 관련 신사업 아이디어' 등 3개 부문이며 참가자의 관심에 따라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공모전은 국내외 대학(원)생이면 전공에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제작 양식, 분량에 관계 없이 개인 또는 팀(4명 이하)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모전 총 상금 690만원 중 1위(한 팀)에게 300만원이 수여된다. 수상자 전원에게는 채용 면접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문의 02)363-7066

/박성훈기자

한화L&C 트렌드 세미나 미래의 인테리어 한눈에

한화L&C는 지난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3/14 인테리어 디자인 트렌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Link in'을 주제로 국내를 비롯해 해외의 전반적인 사회문화 이슈와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 트렌드를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2013~2014년 글로벌 인테리어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동종업계 유사 트렌드 관련 행사와 달리 향후 트렌드를 접목한 실질적 인테리어 공간을 제안하고 각 공간에 적용된 제품을 전시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준 높은 트렌드 분석과 그에 부합하는 새로운 차원의 디자인 제안으로 현업 적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거 3박자 갖춘 '배곧의 배꼽'

1400여 가구 대단지 호반베르디움 녹지·교육·편의 매력

호반건설은 다음 달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 시범단지 B8블록에서 '시흥 배곧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아파트를 공급한다.

지하 1층, 지상 25~29층, 15개 동인 전체 1414가구의 대단지로 전용면적 65~84㎡ 5개 타입으로 구성됐다. 주택형별 가구 수는 65㎡A 616가구, 65㎡B 164가구, 84㎡A 146가구, 84㎡B 161가구, 84㎡C 327가구로 이뤄졌다.

아파트가 지어질 B8블록에는 단지 앞으로 축구장 28개 크기의 맞먹는 중앙공원이 있고 서해를 따라 조성된 해안공원과도 가깝다. 이 공원들로 인해 주거 쾌적성을 비롯한 여가·휴식·운동 공간이 확보될 전망이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45m 거리로 사거리 안전하게 등학할 수 있고 중학교 예정 부지도 인접해 있다. 이 가에 중심상업지구도 200m 거리에 들어설 예정이라 쾌적성 못지않은 편의성도 갖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초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순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분양가는 3.3㎡당 800만원대에 책정될 예정이다. 문의 031-314-5500

/박성훈기자

'사랑의 집고치기' 훈훈한 못질

대림산업 5색 봉사 등 업계 활발한 나눔경영

건설업계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경영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이 중에서 대림산업이 펼치고 있는 나눔사업의 특징은 본사는 물론 전국 각지의 건설현장 직원들이 도움이 필요한 소외이웃들과 밀착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림산업은 행복나눔·소망나눔·문화나눔·사랑나눔·맑음나눔 등 5가지 테마별 나눔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행복나눔은 2005년부터 시작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사랑의 집 고치기' 등 주거시설 정비 지원 사업이다. 올해는 한국 사랑의 집짓기 연합회 서울지회와 손잡고 종로구 이화마을을 찾아 곰팡이 제거, 도배 및 단열마감보드 설치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랑나눔은 본사 및 현장 임직원들이 소외된 이웃을 찾아 마음을 실천하는 활동이다. 보육원, 요양원 등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결연을 맺고 꾸준히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맑음나눔은 환경을 위한 봉사활동. 직원들로 구성된 '맑은나눔 봉사대'와 지자체 등이 연계해 '1산 1천, 1거리 가꾸기'를 진행 중이다.

대림은 2004년부터 사내 중고 PC를 지역아동센터 연계해 지속적으로 기증하고 있으며 이들 PC는 국내 장애인과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보급되고 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수도권 집값 금융위기 이후 최저 기록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인 2008년 9월 이후 수도권 평균 매매값은 최저치, 전셋값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부동산써브가 본격적인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9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소재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346만9115가구를 대상으로 평균 매매값과 전셋값을 조사한 결과, 매매값은 3억7517만원으로 최저치, 전셋값은 최고치인 1억9079만원으로 조사됐다.

2008년 9월 4억704만원이었던 수도권 평균 매매값은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으로 11월 4억원대가 붕괴되며 꾸준히 하락했다. 수도권 평균 전셋값은 금융위기 이후 2009년 3월까지 하향곡선을 그리다 4월부터 본격적인 전세 상승세를 탔다.

/김지성기자 abyhust@

분양단신

웰리 힐리 테마파크 리조트

신안그룹이 성우리조트와 오스타CC의 브랜드를 '웰리 힐리'로 통합 변경하고 호텔과 워터파크, 테마파크 등을 신설하는 등 사계절 복합 테마파크 리조트로 새단장한다.

1995년에 개장한 웰리힐리파크는 강원도 횡성 무공해 청정지대에 대규모(약 660만㎡)로 조성된 사계절 종합 리조트다. 천혜의 환경과 입지에 19면의 광폭 스키 슬로프와 국제 규격의 골프장(웰리힐리cc),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 등 다양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성우리조트를 인수하면서 레저업계 최대 규모의 M&A로 관심을 모았던 신안은 BI(Brand Identity)의 변경과 함께 대대적인 투자로 기존의 노후시설을 보수할 계획이다. 또한 슬로프 확장과 더불어 500실 규모의 객실과 2000석 규모의 연회장을 갖춘 호텔과 워터파크, 키즈파크를 신설하는 등 리조트의 전면적인 개선작업을 통해 고객의 편의와 휴식을 위한 최고의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복사업 소액투자자 모집

전복 최대 생산지인 전남 완도 농공단지에 위치한 미민수산은 국내 최초로 일반인이 전복 관련 사업에 소액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수익금을 배당하고 있다.

2000만원을 투자하면 계약 후 월 80만원의 수익금을 배당 지급한다.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계약자가 원할 시 원금도 상환받을 수 있다. (선착순 100구좌 한정이며 1인 5구좌 한정)

문의(02)501-4544

Chungmu Art Hall OD Musical Company present

당신을 위한
새로운 브로드웨이 뮤지컬

뮤지컬
브루클린
BKLYN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우리 노래를
들어봐!

충무아트홀 중극장 블랙
2012년 12월 4일~2013년 2월 24일

|주최| 충무아트홀 |기획·제작| OD |주관| 오픈리뷰
|문의| 명당찾기 2230-6601 오픈리뷰 1588-5212 |예매처| 명당찾기 | 오픈리뷰 | 인터파크 | 옥션 | 11번가 | yes24 | 클릭서비스

한잔 가득 단풍빛…가을은 '홍차의 계절'

메트로와 립톤이 함께하는 직장인 오피스 리프레시 타임 캠페인 ②

낙엽처럼 붉게 물들어 은은하게 퍼지는
홍차의 풍미를 느끼기엔 가을만한 계절이 없다
쌀쌀한 날씨에 지친 아침 출근 후,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따뜻한 홍차로 몸의 긴장을 풀어보자
홍차에 들어있는 테아닌 성분이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줘 마음까지 한결 편안해진다
/전효순기자

스위트 로즈티 오렌지 다원 홍차

◆매력적인 홍차를 다양하게

대표적인 차 전문 브랜드 립톤의 홍차는 옐로우 라벨 티와 블랙티 4종(클래식 다즐링, 솔리드 아쌈, 마일드 실론, 러시안 얼그레이)으로 구성돼 있어 골라 마시며 즐길 수 있다.

홍차는 블렌드 방법에 따라 지역 본연의 찻잎 특색을 느낄 수 있는 스트레이트 티(straight tea), 여러 산지의 찻잎을 섞어 만든 블렌디드 티(blended tea), 향이나 과일 조각을 첨가해 향을 낸 플레이버 티(flavoured tea)의 3가지로 구분된다.

홍차에 뿌리 깊은 노하우와 역사를 가진 립톤에서는 세 가지 종류별로 다양한 차를 출시해 있어 더 즐거워진다.

◆심플한 홍차를 특별하게

찻잎 고유의 맛과 향으로만 홍차를 즐겨도 홍차 본연의 풍미를 느끼기엔 부족하지 않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꿀이나 생강 등 한 가지 재료만 첨가해도 홍차는 더욱 특별해진다. 홍차로 만들 수 있는 다채로운 레시피는 립톤 공식 블로그 '립톤티가 들려주는 립톤 이야기(liptonstory.blog.m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렌지 다원 홍차

상큼한 오렌지와 매력적인 홍차의 만남으로 특별한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다.

#스위트 로즈티

말린 장미 꽃잎이 첨가돼 은은한 장미향과 함께 감미로운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오피스 리프레시 이벤트
립톤 티타임 세트 드려요

회사에서 답답할 때 어떻게 기분전환 하시나요? 상쾌하게 기분을 리프레시 할 수 있는 나만의 아이디어를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에 올려주세요. 립톤이 사무실 5곳을 직접 찾아가 홍차, 허브티, 그리고 쿠키가 담긴 쿠키트레이 등으로 구성된 티타임 세트로 사내 탕비실을 채워드립니다.
응모기간 11월 4일까지
당첨자 발표 11월 7일(메트로 홈페이지)

◆ 립톤 홍차 종류와 그 특징

구분	이름	특징
Blended Tea	옐로우 라벨 티 (Yellow Label Tea)	전 세계 곳곳에서 생산된 17가지 이상의 홍차를 블렌딩해 만든 차
Straight Tea	클래식 다즐링 (Classic Darjeeling)	섬세한 맛과 은은한 향으로 '홍차의 샴페인'이라 불리는 세계 3대 홍차인 인도 다즐링 지역의 차
	솔리드 아쌈 (Solid Assam)	인도 아쌈 지역에서 생산되는 찻잎으로 강렬하고 풍부한 향이 특징이며 밀크티로도 즐겨 마시는 차
	마일드 실론 (Mild Ceylon)	일명 실론티라 불리는 스리랑카의 찻잎으로 만들어져 부드러우면서 맑고 개운한 맛이 특징
Flavoured Tea	러시안 얼그레이 (Russian Earlgrey)	인도, 베트남산 홍차를 베이스로 해 베르가못 향과 레몬 오렌지 껍질 및 수레국화를 첨가한 가향 홍차

이탈리아 아웃도어 '페리노' 3일 GS홈쇼핑서 한국 론칭

이탈리아의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페리노(Ferrino)가 홈쇼핑 GS샵을 통해 한국에 진출한다. GS샵은 3일 오후 7시20분부터 '페리노 시티 아웃도어 4종'(25만9000원)을 방송한다.

페리노는 1870년 설립된 142년 전통의 이탈리아 아웃도어 브랜드로 현재 미국, 프랑스, 호주, 아르헨티나 등 31개국에 진출해 있다.

GS샵에서 선보이는 '시티 아웃도어 4종 세트'는 아웃도어 활동에 적합한 기능과 패션에 신경 쓴 어번 아웃도어다. 후드웰재킷, 다운재킷, 폴리스티셔츠와 바지로 구성돼 있다.

'샤브샤브 대표' 채선당 승승장구

친환경 재료-웰빙 황동냄비 강점 300호점 눈앞

불황 속에서도 샤브샤브의 열풍이 거세다.

샤브샤브 업계 1위 브랜드 채선당이 2003년 의정부 신곡점을 론칭한 이후 지난해 250호점을 연 데 이어 현재 전국 가맹점 294개로 300호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샤브샤브를 대중화시킨 채선당의 성공 비결은 크게 두 가지다. 채선당 샤브샤브만의 가장 큰 강점은 싱싱한 친환경 야채 10가지를 맛볼 수 있다는 것. '야채(菜)가 신선한(鮮) 집(堂)'을 뜻하는 채선당에선 이름처럼 남양주 등 전국 6개 친환경야채 농장으로부터 매일 야채를 공급받고 있다.

특수 주문제작한 황동냄비도 채선당만의 자랑이다. 채선당의 황동냄비는 음식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식중독균 등 각종 독소를 제거해 더욱 건강하게 샤브샤브를 즐길 수 있게 했다.

채선당의 염태선 이사는 "최근 외식업계에서 샤브샤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속속 경쟁 브랜드들이 진출하고 있지만 채선당은 친환경 식재료와 이를 건강하게 요리해 즐기는 차별화된 웰빙 식문화를 제공해 리딩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리스타 되고 카페도 창업하고 싶다면? 커피MBA로 도전하라

커피를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한번쯤은 바리스타를 꿈꿔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생소하기만 했던 바리스타는 이제 젊은 남녀들의 선호 직업으로 손꼽히기도 한다. 현재 국내에는 다양한 바리스타 교육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 커피MBA(원장 이동진, www.coffeemba.co.kr)는 바리스타의 꿈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으로 정평이 나 있는 바리스타 전문학원이다.

커피MBA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다. 온·오프라인 토탈 커피 솔루션을 기반으로 훌륭한 바리스타를 양성하는 '커피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신선한 커피가 대한민국 커피의 미래'라는 모토 아래 국내 커피 시장의 질적 고급화를 선도하고 있다.

커피MBA의 비즈니스는 커피 아울렛(생두 무역, 원두 유통, 온라인 쇼핑몰 등), 커피 CM(출판, 무지컬, 커피 출반 기획, 만화 제작 등), 커피 TV(온라인 교재 및 교육 컨텐츠 제작), 커피 드림(가맹두산 직영 및 가맹, 브랜드 해외 진출), 커피 투어(해외 커피 패키지 여행), 커피 테마 캠프, 주말 커피 농장 농), 커피 R&D(커피 나무 유통 및 연구, 액상커피 특허 출원 및 상품 개발 등), 커피 바리스타 아카데미(바리스타 양성 교육, 인재파견 등)로 커피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커피MBA의 가배두림은 국내 최초의 핸드드립 커피 프랜차이즈로 커피의 신선도를 지키기 위해 로스팅 후 2주 안에 커피 소비하기 시스템을 도입한 업체다. 차별화되고 깐깐한 로스팅으로 만들어진 가배두림의 커피는 신선하고 건강한 커피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카페 창업을 준비하거나 바리스타가 되려는 이들이 커피MBA로 몰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커피MBA의 바리스타 교육과정은 취미과정, 홈바리스타 자격증 2급, 정규과정(바리스타 2급 자격증 및 커피기본), 커핑(큐그레이더), 핸드드립, 라떼아트, 로스팅, 강사과정, 창업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바리스타 1호에 등재된 이동진 원장을 비롯해 수많은 경력을 쌓은 전문 강사진을 배치,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커피MBA의 이동진 원장은 "바리스타는 커피를 통해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치유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커피는 이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있으며 커피MBA는 이를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카페 창업을 원하는 이들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10월 31일부터는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와 함께 '카페창업을 위한 커피 MBA'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2012년 바리스타 자격증반부터 '취미반'까지 다양한 패키지를 선보이며 최대 71% 할인가로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멋진 바리스타의 꿈에 날개를 달고 싶다면 성공적인 카페 창업을 원한다면 커피MBA의 문을 두드려 보자. 커피MBA본점은 얼마 전 홍대로 확장 이전,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으로 새롭게 교육생들을 맞이하고 있다.

(문의 02-3141-5641)

Star bag

김장훈 "싸이와 불화, 내 탓"

가수 김장훈이 싸이와의 불화설에 대해 방송에서 입을 열었다.

지난달 30일 KBS2 '김승우의 승승장구'에 출연한 그는 "발단은 모든게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동생이 뒤에게 미울 상황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작은 잘못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말했다. 얼마 전 자살 시도를 한 일에 대해서는 "싸이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찬성 '비밀남녀전' 캐스팅

2PM 찬성이 내년 1월 방영되는 MBC 수목극 '비밀남녀전'에 캐스팅됐다.

공도허 역을 맡은 그는 남녀 주인공인 서원(최강희)-길로(주원)와 삼각 러브라인을 형성해 시프하고 절제된 성격을 가진 국가정보원의 에이스 요원을 연기한다. 그는 이번 작품에서 검도·태권도 등 탄탄한 액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지은 네번째 싱글 발표

일렉 작사가 겸 가수 한지은이 네 번째 싱글 '디어 러브'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싱글 '1234' 이후 대만·태국 등 해외 활동에 전념해온 그는 1년 만에 새 앨범을 발표하게 됐다. '디어 러브'는 장재필의 어쿠스틱한 기타와 강한 랩 비트, 일렉트로닉한 느낌이 어우러진 곡이다.

장재인 '샌디'에 뉴욕 고립

가수 장재인이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미국 뉴욕에 고립됐다.

소속사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앨범 작업 및 여행 차 뉴욕을 방문했다가 31일 귀국 예정이었던 그는 공항을 비롯한 도시 전체가 마비되면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관계자는 "비행기 티켓은 물론 숙소도 구하지 못해 난감하다며 최대한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안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힘 빼고 나답게 노래 불렀다"

2년9개월 빠르게 바뀌는 음반시장에 적응이 안 됐다. 90년대 가수 특유의 활동 패턴에 익숙해져 있었다. 6집 활동을 끝내고 1년 정도는 다시 앨범 낼 엄두가 안 났다. 아이돌이 워낙 강세이기도 했고, 꾸준히 음악을 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상업적 성공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러다 주위를 둘러보니 나 혼자 음악을 하지 않고, 예능만 하고 있더라. 어린 친구들은 내가 가수인지도 모를 정도로. 결국 힘을 빼고 음반 작업을 시작했고, 1년6개월 만에 완성할 수 있었다.

예전에는 음반을 내면 '대박 쳐야지'라는 마음이 가득했다. 늘 잘 되기만 하던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런 성공은 다시 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한동안 활동을 피하게 됐다. 연예인으로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을 찾게 된 게 마음을 편하게 먹을 수 있었던 계기였다.

진심 새 앨범에 많은 변화를 줬다. 가급적 가사를 많아 쓰려고 했고, 편곡의 절반(5곡)을 직접 썼다. 이전의 기계적인 화법에서 벗어나 내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을 위해 썼고, 내 화법으로 편하게 전달하려고 했다. 예전에는 아주 착한 노래만 불렀다면 이번엔 다양한 소재를 노래에 담았다.

타이틀곡인 '남자가 다 그렇지 뭐'가 특히 그런 곡이다. 설렘 속에 사랑을 시작하고 한동안은 서로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아껴주지만, 이내 익숙해지고 첫 만남의 설렘이 식어간다. 이 곡은 이런 과정을 남자의 시점에서 굉장히 솔직하게 노래한다.

18년 데뷔한 지 18년째가 됐지만 오래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다. 그런데 쉬면서 급격히 뒤처지는 내 모습을 봤다. 이승철·이문세 형님을 보면서 '나도 저 나이까지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선배가 되어야 하는데'라는 마음이 더 간절해 진다.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도 주류에서 밀어지지 않는 가수로 남고 싶다.

예능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나가는 것은 가수 이미지에 조금은 마이너스였다. 그러나 연예인 김종국에게는 도움이 됐다. 음악만이 활동 중심이던 시기가 있었

욕심 버리고 여유 찾아
이제는 예능에도 재미
결혼은 하고 싶지만…

지만 이제는 예능에 재미를 느끼고 그런 모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 됐다.

그런 점에서 SBS '런닝맨'에 애정이 각별하다. 과거 예능은 그냥 나가는 프로그램이었다면, '런닝맨'은 내 것을 한다는 책임감을 처음 느낀 프로그램이다. 굉장히 유명한 분들도 애들을 데리고 촬영장에 찾아오곤 하는데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여유 얼마 전 동방신기를 만나서 "사람처럼 살아라"는 말을 해줬다. 데뷔 초기 아무것도 모르고 활동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느낀 점이다. 여유를 가지라는 말이다. 그러지 않으면 너무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다. 나도 요즘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생각하고 생활하는 방식이 참 많이 변했다.

결혼 최근 찌라시(증권가 정보지)에 내가 곧 결혼할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곤혹스러웠다. 사람처럼 살아야겠지만 정말 결혼 계획이 없다. 사귀는 여성도 없다. 요즘 들어 점점 결혼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한다. 하하, 개리와 함께 참 많은 얘기를 했었다. 그런데 하하가 먼저 결혼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멘붕' 그 자체였다. 묘한 슬픔이라고 할까.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는 자체가 참 어렵다고 보인다. 나도 그런 상대를 빨리 만나고 싶다. 요즘 들어 정말 결혼하고 싶다. 무척 노력 중이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디자인/김지연

허경환·신수지 "친한 사이일 뿐"

양측 열애설 부인

개그맨 허경환(31)과 리듬체조 선수 출신 신수지(21)가 열애설을 부인했다.

허경환의 측근은 31일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허경환이 친한 오빠 동생 사이일 뿐이라고 하더라. 어린 신수지가 이번 일로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봐 걱정스러워했다"고 전했다.

허경환은 KBS2 새 예능 프로그램 '인간의 조건'을 촬영하며 핸드폰을 일주일간 꺼놓는 미션을 수행 중이라 이날 오전내내 연락이 닿지 않았으나 12시께 촬영장 인근에서 측근을 만나 직접 입장을 전달했다.

신수지의 소속사 관계자 역시 "방송을 통해 처음 만난 후 친하게 지내는 사이다. 연인 관계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허경환은 신수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허경환의 측근은 "여린 관계냐고 물어봤는데 신수지를 좋아한다고 하더라. 그러나 아직 신수지의 나이가 어리고 공인인 각자의 입장도 있어 조심스러워한다"고 귀띔했다.

신수지는 8월 19일 허경환이 출연하는 KBS2 '개그콘서트'에 특별출연했으며 두 사람은 9월 2일 방송된 KBS2 '출발 드림팀 2'에서 커플로 호흡을 맞춰 검가를 펼쳤다. /박진영기자

'강남스타일' 뮤비 유튜브 조회 6억건 돌파 '역대 3위'… 식을 줄 모르는 인기

싸이 이대로 가면 곧 1위

유튜브에서 싸이의 말발굽 소리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싸이의 세계적인 히트곡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이하 뮤비)가 공개 10여일 만인 지난달 31일 조회수 6억 건을 넘어섰다. 52일 만에 1억 뷰를 달성한 이 뮤비는 이후 초고속으로 조회수를 늘려 왔다.

66일째 2억 뷰, 76일째 3억 뷰, 86일째 4억 뷰, 98일째 5억 뷰를 기록했다. 1억 뷰를 넘어선 이후로는 평균 11.4일마다 1억 건씩 조회수가 증가했으며, 그 속도는 현재까지 늦춰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강남스타일 뮤비 조회수는 31일 오후 2시 현재 6억830만 건으로 역대 가장 많이 본 영상 3위에 올라 있다.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7억 9430만 건), 제니퍼 로페즈의 '온 더 플로어'(6억1480만 건) 뮤비가 여전히 1~2위를 지키고 있다.

강남스타일 뮤비가 최근 조회수 1억 건을 늘리는 사이 이들 뮤비 조회수는 약 300만~400만 건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 같은 추세라면 싸이는 1일 로페즈를 제치고 2위에 오르고 이달 말에는 비버를 꺾고 유튜브 역대 최다 조회 동영상 1위의 주인공으로 등극할 전망이다.

/홍순호기자

김희선 "'신의'는 내 연기인생 터닝포인트"

배우 김희선이 SBS 월화극 '신의'를 끝낸 소감을 밝혔다.

그는 종영 다음날인 31일 소속사를 통해 "이 작품은 내 연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처음으로 도전하는 사극을 통해 좋은 경험을 쌓아서 힘들었지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6년 만의 컴백에서 스타의 허울을 벗고 배우의 옷을 입고 싶었다. 그동안 제작 지연으로 2년 넘게 기다렸지만 결과적으로 시청자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이 작품을 통해 결혼 후 6년 만에 드라마에 복귀한 김희선은 고려시대로 시간 이동을 한 현대 여의사 유은수를 열연해 한층 물오른 연기력과 변함없는 미모로 호평받았다. /박진영기자

'명인 3인방' 한 무대 선다

김성녀 사회에 국수호·안숙선 공연 주목

국수호 안숙선 김성녀

국립무용단의 국수호, 국립창극단의 안숙선, 국립극단의 김성녀 등 '명인 3인방'이 처음으로 한무대에 선다.

근현대를 이끈 전통 예술가를 조명하고, 젊은 전통예술가를 소개하는 '정동문화나들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 정동극장이 가을 시즌을 맞아 '명인의 나들이'와 '예인의 나들이'를 기획했다.

먼저 5일 오후 7시30분 진행될 '명인의 나들이'에서는 김성녀의 구성진 사회로 국수호의 춤과 안숙선의 소리가 어우러진 고풍격 무대를 꾸밀 계획이다. 30여 년 전 활동을 함께했던 시절의 이야기가 함께 곁들여진다.

12일에는 '예인의 나들이'로 국립무용단 출신의 양승미, 김승일, 전순희가 출연해 전통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 예술가의 무대가 펼쳐진다.

최정임 극장장은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의 멋진 무대를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 공연은 무료로 진행돼 전화 예매를 서둘러야 한다. 문의 02)751-1500

/김민준기자 mjkim@

"앤서니, 강마에와 다른 독설가"

월화극 '드라마의 제왕' 김명민 "시청률 40%대 만들것"

안방극장의 흥행 보증수표 김명민이 SBS 새 월화극 '드라마의 제왕'을 통해 흥행불패 제작자로 돌아온다.

지난달 31일 목동SBS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그는 "극중 앤서니 김의 대사처럼 시청률 10%대의 어중간한 미니어 드라마 아닌 40%대의 대박 드라마를 만들 것"이라며 기대를 당부했다.

하지만 이어진 라운드 인터뷰에서 "앤서니 김과 배우 김명민이 지향하는 바는 다르다. 배우는 드라마 외적인 것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신경써서도 안된다는 것이 지론"이라고 밝히면서 "시청률보다 작품과 캐릭터에 집중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전작 '베토벤 바이러스'의 강마에 캐릭터에 이어 또 한 번 매력적인 독설가 캐릭터 역을 맡은 것에 대해 "강마에가 고전주의 시대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온 사람이라면 앤서니는 전형적인 현대인"이라며 "음악과 예술에 대한 애착을 가진 강마에와 돈과 성공이 목마른 앤서니는 목적의식부터 다르다고 생각했고,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자신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제국 프로덕션 대표 앤서니 김과 인간미 넘치는 보조작가 이고은(정려원), 톱기 충만한 한류스타 강현민(최시원) 세 사람이 몽쳐 100억 대작 드라마 '경성의 아침'을 만드는 과정을 담았다.

'미남이시네요' 등을 연출한 홍성창 PD가 메가폰을 잡고, '씨인'을 집필한 영화감독 장항준과 신예 이지효 작가가 함께 쓴 이 작품은 5일 첫 방송된다.

/권보람기자 kwon@metroseoul.co.kr

또디

by 정연식

<524> 절대반지

wind8686@naver.com

간부가 수십억 횡령…TV조선 어쩌나

종합편성채널 TV조선 간부 이모씨가 수십억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뒤 중국으로 도주했습니다.

이씨는 조선일보 회계팀장으로 근무하다가 TV조선으로 적을 옮겼으며, 그가 빼돌린 회사 돈은 최소 40억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추정된다는군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에 이미 간부 이모씨에 대한 TV조선의 고소장이 접수됐으며 피고소인 소재와 정확한 내막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검사님의 말에 따르면 이씨의 범행은 배임이 아닌 횡령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참 충격적입니다. 왜 충격적이냐? 궁금하시죠.

배임은 사무 관리에 대한 배신적 행위를 처벌하는 반면에, 횡령은 타인 소유의 점유물을 불법으로 차지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즉, TV조선에서 수십억을 현금화 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대체 왜! TV조선은 수십억을 현금화하고 있었을까요?

/기고자 ***

웃기는세상 그러면 그렇지. 그 조선이 어떤 조선인데

dandy 운영 자금이었을 텐데… 파산 시일이 더 빨라지겠네요.

csong 이 기회에 어려워져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어떨지요 ★★★ 홋

비빔은 유수수 시청률이 아직도 0%대라면데. 망하는 건 시간문제니 돈 갖고 튄 거 아닐까요.

윤예림 이글이 곧 현금입니다. 이글 빼돌리기는 전형적인 수법이니 횡령이라고 해서 더 충격적일 것은 없습니다. 설마 돈 가방 들고 날랐다고 믿는 건 아니시죠?

/정리=김보람기자 @metroseoul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7 What day is today? 요일과 달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사교도합니다.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96. 내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97. 이번 달은 몇 월이에요?
98. 이번 달은 1월이에요.
99. 그건 내일까지예요.
100. 저는 그녀를 이틀 전에 봤어요.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96 What day is tomorrow?
97 What month is this?
98 It is January
99 It s due tomorrow
100 I saw her two days ago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 짧은 대화 훈련

96~100 문장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When is the paper due?
B It s 기한인 tomorrow [99]

정답 due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What month is this? Is it January / February ?

2 I saw Tom two days / weeks ago

ETS TOEIC Reading Prep Book

01 The Reinito Waterfall is one of the most popular tourist ______ on the island
(A) attracting (B) attractive
(C) attractions (D) attracts

02 Candidates for the position of assistant manager must be ______ of assuming a wide range of responsibilities
(A) capable (B) enclosed
(C) selected (D) ready

01. [illegible]
해설 [illegible] tourist attractions[illegible]
어휘 waterfall 폭포 attract 끌다 attractive 매력적인
정답 (C) attractions

02 [illegible]
해설 [illegible] be capable of -ing[illegible] 'be able to'[illegible]
어휘 assume [illegible] responsibility [illegible] enclosed [illegible]
정답 (A) capable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2. 사진 묘사하기

느낌 및 분위기를 묘사하는 표현

• It looks like ~처럼 보입니다	they are having a good time 그들은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 It is a beautiful day for a picnic. 소풍 가기 좋은 날로 보입니다. / this is a famous place 유명한 곳으로 보입니다

• It looks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위기	quiet, 조용한	clean, 깨끗한
		popular 인기있는	cozy 아늑한
		interesting, 흥미로운	peaceful, 평화로운
		pleasant, 유쾌한	boring, 지루한
	날씨	warm, 따뜻한	cold 추운
		chilly, 쌀쌀한	sunny 화창한
		hot, 더운	foggy

삼성 챔피언 1승 남았다

KS 5차전 승리…선발 윤성환 1실점 호투

한국시리즈 5차전 9회초 무사 상황 SK 최정 타석때 삼성 오승환이 역투 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이 2년 연속 한국시리즈 우승에 바짝 다가섰다.

삼성 라이온즈는 3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2팔도프로야구 SK 와이번스와의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선발 윤성환의 호투와 안지만 등 불펜진의 활약을 앞세워 2-1로 승리했다.

윤성환은 최고구속 142㎞의 직구와 각이 좋은 슬라이더, 커브를 앞세워 6이닝 동안 5피안타 1실점 호투를 했다. 1차전 승리투수였던 윤성환은 올해 한국시리즈에서만 2승을 따냈다.

3차전에서 난타를 당했던 안지만은 1⅔이닝 동안 삼진 3개를 솎아내며 퍼펙트 피칭을 선보였고, '끝판대장' 오승환은 1⅓이닝 무실점 호투로 1점차 승리를 지켜냈다.

이승엽은 4타수 2안타 1득점을 올리며 타선을 이끌었다. 4차전에서 어이없는 베이스러닝으로 패배의 빌미를 제공했던 이승엽은 5차전에서 자존심을 회복했다.

삼성은 2년 연속 한국시리즈 우승과 통산 6번째 우승(1985년 전·후기 통합 우승 포함)에 1승 만을 남겨두게 됐다. 삼성과 SK의 한국시리즈 6차전은 1일 오후 6시 잠실구장에서 개최된다.

삼성은 SK의 에러에 편승해 1회말과 3회 각각 점수를 올렸다. 1회 정형식과 이승엽의 연속안타로 2사 1, 3루 기회를 만든 후 SK 선발 윤희상의 폭투로 가볍게 선취점을 올렸다.

삼성은 3회에도 이승엽과 최형우의 연속 안타로 찬스를 만들었다. SK 임훈의 포구 에러로 이승엽은 3루까지 진루했고, 박한이의 유격수 앞 땅볼 때 홈을 밟아 1점을 추가했다. 이승엽이 홈으로 들어올 때도 SK 유격수 박진만은 공을 잡고 더듬어 홈 송구도 병살타로도 연결시키지 못했다.

주지 않아도 될 점수를 준 SK는 4회초 반격 기회를 잡았다. 박재상과 최정이 연속 내야안타로 찬스를 만든 후 이호준의 적시타로 1점을 만회했다. 그러나 삼성은 더 이상의 추격 점수를 허용하지 않았다.

오승환은 8회 2사 후에 등판해 무실점 호투로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9회 SK 선두타자 최정에게 3루타를 허용하기는 했지만, 후속 타선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경기를 끝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 한국시리즈 5차전 전적

SK	000	100	000	1
삼성	101	000	00X	2

▲승 윤성환 ▲세 오승환 ▲패 윤희상

아스널-레딩 '12골 난타전'

아스널과 레딩이 12골을 주고받는 난타전을 벌였다.

아스널은 31일 잉글랜드 레딩의 마데스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캐피털원컵 16강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레딩을 7-5로 꺾었다. 특히 0-4로 뒤지다가 승부를 뒤집는 무서운 뒷심을 보여줬다.

경기 초반은 레딩이 우세한 분위기였다. 전반 10분 제이슨 로버츠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미켈리 리아거우드, 노엘 헌트의 릴레이골과 아스널 수비수 로랑 코시엘니의 자책골까지 묶어 네 골을 앞서갔다.

그러나 아스널은 전반 추가시간 시오 월콧의 만회골에 이어 후반 3골을 보태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 갔다. 연장 전후반 서로 한 골씩을 주고받은 뒤 연장 추가시간 마루아네 샤마크와 월콧이 연속골을 터뜨려 승부를 결정지었다. /김민준기자

'손흥민 영입전' 인터 밀란도 가세

슈퍼탤런트 손흥민(20·함부르크, 사진 오른쪽)의 영입전에 이탈리아 명문 인터 밀란까지 가세했다.

이탈리아 축구 전문매체 칼치오 리안은 31일 "인터 밀란의 안드레아 스트라마치오니 감독이 손흥민을 주시하고 있다"며 "지난해 일본 수비수 나가토모 유토를 영입한 데 이어 손흥민까지 데려와 아시아 축구팬들을 확보하려는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리버풀도 손흥민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그를 영입하기 위해선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9경기에서 연속 선발출전해 5골을 기록 중이며, 팀 내 개인 득점순위 1위다.

소속팀 함부르크도 손흥민과 재계약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독일 일간지 디 벨트는 "함부르크 구단이 다음 주 중 손흥민의 에이전트와 처음으로 만나 2014년 이후 계약 연장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민준기자

박종우 동메달 증명서 받았다

체육회 "통상적인 절차…징계 여부와는 별개"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3, 4위전에서 '독도 세리머니'를 펼쳤던 박종우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동메달 증명서를 받았다.

대한축구협회는 31일 "전날 대한체육회로부터 런던올림픽조직위원회가 발급한 증명서를 전달받았다"며 "동메달 수여가 보류됐던 박종우의 증명서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증명서에는 박종우의 이름과 함께 남자축구 동메달리스트라는 문구가 쓰여있고, 하단에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의 사인이 인쇄돼 있다.

하지만 박종우가 IOC로부터 동메달을 전달 받은 것은 아니고, 국제축구연맹(FIFA) 역시 박종우에 대한 징계 여부를 아직 심사 중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올림픽에 참가해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통상적으로 발급하는 증명서"라며 "IOC 홈페이지에도 박종우가 동메달리스트로 표시돼 있다"고 말했다. 축구협회 관계자도 "증명서 발급과 박종우에 대한 징계 여부는 별개 사안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울산 AFC 챔스리그 결승 진출

울산 현대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K리그 클럽이 4년 연속 AFC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오른 쾌거를 이뤘다.

울산은 31일 오후 울산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2 AFC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에서 분요드코르(우즈베키스탄)를 2-0으로 이겨, 1~2차전 득점 합계 5-1로 결승에 올랐다.

울산은 후반 7분 김신욱이 골을 터뜨린 이후 28분 이근호가 쐐기골을 성공시키며 승리를 확정했다.

울산은 10일 울산월드컵경기장에서 사우디 아라비아 클럽 알 이티하드와 알 아흘리의 4강전 승자와 결승전을 치른다. /장윤희기자 unique@